

##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김 주 삼\*

###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창지투개발계획의 상관관계
- III.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가 동북아에 미치는 파급효과
- IV. 한국의 대응
- V. 결 론

### 〔 논문 요약 〕

2009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규모는 세계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미국과 G2의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표방한 개혁개방노선을 추진한 지 30년을 지나오면서 연해지역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낙후지역이었던 동북3성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두만강유역개발개방선도구: 창-지-투를 중심으로(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비준하였다. 창지투개발계획은 1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성격을 벗어나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개발계획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중·북·러는 창지투의 핵심국가로 분류되며, 한·몽·일은 창지투개발계획에 있어서 배후국가들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중국동북진흥계획은 1992년에 유엔의 UNDP가 두만강유역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관련국들의 참여와 투자유치 부진 및 국제적 문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사례에 비추어 볼 때, 창지투개발계획은 향후 성공여부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일 수밖에 없다. 창지투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국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창지투개발계획, 동북3성, 국가전략사업

\* 길림대학교, 정치학 박사

\*\* 이 논문은 2010년 8월 24일 한국동북학회가 주최한 한·중수교 18주년 기획세미나(조선대 사회과학대학 2층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 론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에 의해 30년 이상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의 결과는 2010년 상반기 중국의 GDP 그동안 30년간 세계경제대국인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2위로 올라서면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상강(香港), 아오먼(阿門), 칭다오(靑島),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텐진(天津), 다롄(大連) 등 주로 중국 연해지역을 중심축으로 하여 추진되어왔다.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평균 10%대를 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유지해왔으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막대한 13억 인구로 내부적 빈부차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인당 GDP는 3566 달러로 세계99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15년경에 이르르면 약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인 도시는 상하이를 비롯한 10개 대도시로 늘어나고 있는 불균형적이고 모순된 현상이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다.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세계경제 측면에서 볼 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한 국가의 정책이자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소득차이, 도농(都農)의 차이, 거점도시와 소규모 도시의 발전수준 차이는 향후 중국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1949년 10월 1일 신(新)중국 건국 이후 1970년대까지 중국에서 가장 공업화된 도시로 손꼽혔던 창춘, 하얼빈, 선양이 위치한 동북3성은 1978년 중국 정부가 연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밀려났다.

광활한 만주별판인 동북3성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비옥한 토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와 내륙 간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동북3성 인민들의 불만도 누적되어왔다.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두만강유역개발: 창-지-투를 중심으로》(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비준하였다. 즉 창지투개발계획으로 불리우는 이 지역개발사업은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역할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길림성정부가 진행하며, 연구기관은 길림대학의 동북아연구원이 주요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동북3성지역개발을 위한 동북진흥계획은 지난 기간 동안 수 년에 걸쳐 연구보고서와 관련연구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역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으로 승인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었다.

창지투는 분명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성격을 벗어나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몽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지투와 연장선상의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은 1992년에 UNDP가 두만강유역공동개발계획을 구상하였으나, 관련국들이 참가와 투자유치 부진과 국제적 문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 향후 성공여부와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창지투개발계획에 대한 향후 한국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는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창지투개발계획이 중국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중국이 추진해왔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심 속에서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창지투개발계획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조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 2009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 추진요인으로, 비준 배경과 개발진행상황 및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응노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창지투개발계획의 상관관계

### 1. 중국 동북진흥계획에 따른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 추진배경

2009년 11월 18일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계획요강: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를 중심으로》는 중국이 창춘시, 지린시, 투먼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며, 국가에서 유일하게 변경지역에 비준한 국가전략사업이기도 하다. 《중국 두만강지역개발협력계획요강: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를 중심으로》(약칭 요강계획)은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신속한 개발과 국내외 연동하여 개발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sup>1)</sup>

창지투개발개방 선도구계획(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우선 개괄적으로 그 개발범위를 살펴보면, 2010년~2020년까지 길림성(吉林省)지역에 포함되는 창춘시(長春市), 지우타이시(九台市), 더후이시(德惠市), 농안현(農安市), 지린시(吉林市), 용지시엔(永吉縣), 자오허시(蛟河市), 옌벤주(延邊州) 전역으로 총면적은 약 7만 3000km<sup>2</sup>, 인구는 1090만 명으로 면적과 인구는 길림성의 1/3에 해당되며, 경제부문에서 총규모가 길림성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1) [www://wenku.baidu.com/view/](http://www://wenku.baidu.com/view/) (검색일: 2010.08.15).

〈동북아연구〉

중앙정부가 두만강지역에 협력투자하는 핵심지역이다.<sup>2)</sup>

창지투개발계획의 주요골자는 두만강지역협력촉진, 계획6개분야 보장, 공간배치, 산업발전, 기본설비, 체제기제, 국내협력, 창지투개발개방촉진 진행부서의 국제협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의 개발전략, 2개의 발전단계, 3개방면의 중점임무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4개의 개발전략은 중국의 연변(沿邊)개방개발의 주요지역, 중국의 동북아개방의 주요 문호개발, 동북아경제기술협력의 주요 무대구축,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창지투개발을 통해 연변(沿邊)개방체제의 새로운 실험지역과 경쟁력있는 발전지대 및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진흥의 주요 엔진이자 경제발전의 성장지대 건설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개의 발전단계전략은 제1단계로 2012년까지 개방창구로서 훈춘시를 인구 30만 명 규모의 경제발전도시로 성장시키며, 창지투지역 경제 총규모를 현재보다 경쟁력있게 늘리고 삼림녹화율을 60%이상 유지하게 만들며, 수출입 총무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중국이 이 지역을 동북아 신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우선 2020년까지 중국 두만강지역의 대외개방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 돌파구를 마련하여 산업적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새롭고 창의로운 국내의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며, 이후 창지투지역경제 총규모를 향상시켜 중국이 이 지역을 동북아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지대로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3개 방면의 임무는 첫째, 신속히 창지투개발선도구를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 적극적인 창지투와 국내지역의 연동시키는 것이며, 셋째, 창지투지역에서 국제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 2.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개발의 필요성

### 1) 동북지역의 경제적 낙후지역 발전

동북지역은 중국의 역사과정에서 볼 때 한족(漢族)보다는 주로 이민족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해 온 특수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이 끝나고 서구세력이 중국으로 진출범위를 확장시키면서 서구열강의 치열한 패권쟁탈의 각축장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

중국은 1978년 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3중전회의에서 덩샤오핑에 의해 제창된

2) 王胜金, 赵儒煜,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的城镇体系建设战略"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152-153页.

3) 刘雅郡, "中吉林省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与路旅游业发展", 『동북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29호), pp. 214-215.

사상해방, 실사구시, 미래를 향한 일치단결을 기치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중국 성립 이래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sup>4)</sup> 그러나 1978년 덩샤오핑의 중국 공산당 중앙권력장악 이후 정치분야에서는 사회주의정책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이론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경제분야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노선을 지향해 왔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목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해지역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전부터 이미 서방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역이었다. 이는 1842년 중국의 아편전쟁 종전 이후 서구열강세력들에 의해 유린되어 국제무역을 위한 조차지로서 토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유리하였다.

중국 개혁개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광둥성의 선전으로 중국 개혁개방 노선을 선포한 덩샤오핑에 의해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1980년 당시 선전의 인구는 약 3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어촌마을이었으나, 2007년말 기준 선전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의 대도시로 변하였고 1인당 평균소득도 1만 3,000달러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였다. 선

〈표 1〉 동북3성 2000-2008년 대외무역통계(단위: 억 달러)

구분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전 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00	108.5	81.7	26.8	12.4	13.1	-0.7	14.5	15.4	-0.9	2,492.0	2,250.9	241.1
2001	111.1	88.0	23.1	14.6	16.7	-2.1	16.1	17.7	-1.6	2,661.0	2,435.5	225.5
2002	123.7	93.7	29.9	17.7	19.3	-1.7	19.9	23.6	-3.7	3,256.0	2,951.7	304.3
2003	146.3	119.3	27.0	21.6	40.1	-18.5	28.7	24.6	4.2	4,382.3	4,127.6	254.7
2004	189.2	155.2	34.0	17.2	50.8	-33.6	36.8	31.1	5.7	5,933.2	5,612.3	320.9
2005	234.3	175.7	58.6	24.7	40.6	-15.9	60.7	35.0	25.7	7,619.5	6,599.5	1,020.0
2006	283.2	200.7	82.5	30.0	49.2	-19.2	84.4	44.2	40.2	9,689.4	7,914.6	1,774.8
2007	353.2	241.5	111.7	38.6	64.4	-25.8	122.6	50.4	72.2	12,177.8	9,559.5	2,618.3
2008	420.6	303.8	116.8	47.7	85.7	-38.0	165.7	63.2	102.5	14,285.5	11,330.9	2,954.6

출처: 『中国统计年鉴』, 『辽宁统计年鉴』, 『黑龙江统计年鉴』 及全国和各省 『200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布』, 『东北地区2008年经济形势报告』, 『东北亚研究』吉林省社会科学院, 2009年 第3期, 52页.

4) 走東濤·歐陽日輝, 『新中國經濟發展60年』, 北京: 人民出版社, 2009年 268-269頁.

전시의 국내총생산(GDP)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1980년 1억 769만 위엔에서 2007년말 기준 6765억 위엔으로 3848배 급증하였다.<sup>5)</sup> 이는 덩샤오핑의 1978년 중국개혁개방 노선 선포, 1980년 선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지정, 1992년 1월 선전(深圳)-주하이(珠海)-상하이(上海)로 이어지는 남순강화(南巡講譚)를 통해 변함없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78년 이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격차와 발전속도는 갈수록 심화되었으며, 동북지역은 서부개발지역과 함께 중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창지투개발계획은 중국의 국내적 차원과 동북지역 변경 주변국의 정세변화로 국제적 문제가 겹치는 복잡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국가전략 사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2008년 동북지역경제형세보고서』에 따르면 동북3성의 총생산액은 28,196억 위엔으로 동 시기 중국 GDP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대외무역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표 1〉에서 동북3성의 2008년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086.9억 달러(수출: 633.9억 달러, 수입: 453.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 가운데 요녕성 수출입 총액은 724.4억 달러(수출 420.6억 달러, 수입 303.8억 달러)는 2000년의 3.8배로 나타났으며, 길림성 수출입 총규모는 133.4억 달러(수출 47.7억 달러, 수입 85.7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5.2배로 나타났다. 흑룡강성의 수출입 총규모는 229.0억 달러(수출 165.7억 달러, 수입 63.2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7.7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여기서 동북3성 가운데 길림성의 대외무역규모는 인접 요녕성과 흑룡강성에 비해 무역수지가 상당히 뒤처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길림성의 경우 2008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총액이 133억 4,100위엔으로 전국의 0.52% 수준이며, 대외무역의존은 14.4%로 전국 평균 59.2%의 1/4에 불과하다. 특히 동북지역은 북한과 러시아에 가로막혀 요녕성의 다롄항이 유일한 출구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특수성을 안고 있다.

철도교통에서도 다롄~선양~창춘~하얼빈을 연결하는 철도는 중국에서 가장 혼잡하다. 예를 들어 기차로 다롄~상하이까지 석탄을 운송할 경우 20일, 선박을 이용할 경우 15일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북한앞 동해가 뚫려 창춘~동해~상하이 루트가 생긴다면 4~5일이 소요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지역의 교통장애와 경제적 수요는 자연스럽게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을 승인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2) 동북지역개발에 대한 강점과 변경지역 주변정세의 변화

5) <http://www.hani.co.kr>(검색일: 2010.08.18).

6) 『东北亚研究』, 吉林省社会科学院, 2009年 第3期, 51-52页.

창지투개발계획은 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강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내부조건으로 개발 지역이 창춘-지린-투먼-훈춘까지 이어지는 지리적인 위치의 양호성, 풍부한 지하자원의 보유, 과학기술과 산업능력의 우세와 지역협력이익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외부조건으로는 중앙정부의 창지투개발목표에 대한 지원과 보장, 중앙정부의 두만강유역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동북진흥계획요구조건과의 부합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라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몽골 5개국 공동으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유엔과 각국의 공동노력은 두만강지역개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두만강지역개발에 있어서 예상목표의 부재로 지역개발에 대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곤란한 점을 노출시켰다.<sup>8)</sup>

2009년 중국의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비준은 변경지역 주변국인 러시아의 연해주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중국 중앙정부가 자극받은 것도 간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점점 극동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2012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년 이 지역에 28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산-라진철도건설과 북한의 부두항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북투자를 본격화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러시아는 이외에도 몽골과도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였다.

중국은 2008년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2008년 8월 5개부처 관련책임자를 길림성정부와 연변정부에 기획조사하게 하였다. 길림성이 그 조사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자 중앙정부는 그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이전에 연구해 온 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하는 국가정책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9)</sup>

이후 창지투개발계획은 2009년 11월 길림성이 동북진흥개발을 목적으로 그동안 연구해 온 동북3성개발계획을 중앙정부에 성(城)정부의 개발계획을 보고하여 국무원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중국경제전략차원에서 채택된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3) 중국의 부상과 지역균형발전전략의 대두

AFP통신에 따르면 IMF가 내놓은 2008년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PWC는 2030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 1위로 부상하고, 일본은 4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해 볼 때, 20년 뒤 세계

7) <http://news.sohu.com>.(검색일: 2010.08.12), 中国图们江地区合作规划纲要全文.

8) 陈志恒·万可, "关于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的理论解读",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 (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173页.

9) <http://www.newswave.kr/sub-red>(검색일: 2010.08.05).

<동북아연구>

10대 경제국은 중국을 필두로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독일, 멕시코, 프랑스, 영국으로 재편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덩샤오핑 이전 중국의 경제발전수준은 1949년~1978년 약 30년간 중국의 GDP는 과거 소련과 같이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최강대국으로서의 선진기술, 자본, 세계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제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추진 이후 30년간 선전, 광저우, 상하이, 칭다오, 옌타이, 톈진, 다롄 등 주요 연해도시에 막대한 자본과 투자로 2009년 중국의 수출규모는 세계 1위, 2010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GDP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올라왔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최,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 등 세계 주요 행사를 치르면서 21세기 미중시대 즉 G2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국가로 급부상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이러한 놀라운 경제성장 이면에는 연해지역을 제외한 서부지역과 동북3성은 연해지역의 경제발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서부지역인 시장과 신장 등은 소수민족의 특수성과 지리적인 위치로 중국정부에서 단순히 개발속도를 늦춘다는 것보다는 국가전략차원에서 경제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북3성은 이러한 서부지역보다는 상대적 경제개발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 요소들이 누적돼 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동북3성의 경우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공업화된 지역으로 경제수준이 높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장춘의 경우 일제 만주국시절 중국본토를 장악하기 위해 위(僞)만주국을 세워 일본 수도 동경을 옮겨 새로운 수도로新京(新京)을 계획했을 정도로, 창춘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경제수준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선진화된 도시였다.

하얼빈은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하얼빈에 자본과 경제투자효과로 러시아식 경제공업도시였다. 선양은 일본이 장춘으로 일본거점을 옮기기 전까지 이미 상당한 경제적 토대를 닦아놓았던 지역이다. 다롄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던 지역이었으며, 국제금융과 국제무역도시로 성장한 경제금융도시였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저성장으로 낙후된 동북지역은 중국의 전략적 선택지역으로 이제 새로운 중국신경제의 거점으로 부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중국 동북진흥계획의 분석 및 평가

#### 1) 동북진흥계획의 경과

창지투개발계획은 이전 1992년 유엔개발회의(UNDP)가 두만강 하류지역을 국제적인 차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구상한 TRADP(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와 연결되어 있다. 당시 중국, 남북한, 몽골, 러시아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기로 한 다자간 개발프로젝트였다. 그래서 중국은 국무원위탁계획위원회에서 《두만강하류훈춘지역개발프로그램협조조직》과 《중국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비준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판공청이 국무원발령(2005 36호)로 《동북 노후공업기지 발전확대 대외개방 실시의견》 가운데 동북아시아국제경제기술협력, 변경지역개발과 대외개방 촉진, 두만강국제협력개지역 지속, 상호무역시장과 수출가공지역, 헤이허(黑河), 수이펀허(綏芬河: 東寧), 훈춘(琿春), 단둥(丹東) 등 변경지역에 물류무역 집산지를 구상과 수출입가공 및 국제비즈니스 여행기능, 중국의 도로, 항구와 북한의 도로, 항구 일체화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4년 동북3성개발을 위한 '3종5횡'계획을 발표하였다. 3종 A는 다렌~헤이룽장성을 연결하는 동변철도(東北地區東部邊境鐵路)건설계획으로 이는 2008년 12월에 완공되었고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322km로 연장시켜 동북3성과 변경지역을 관통하는 철로가 되었다. B는 다렌항과 동북3성의 주요 도시인 선양~창춘~하얼빈과 연결하는 공업벨트건설, C는 동북3성과 네이멍구를 자원물류지역으로 연결시키는 계획이었다. 5횡은 공업화지대 건설, 개발구 건설 등 5개 사업인데 창지투는 그 가운데 5횡-2사업에 해당한다.<sup>10)</sup>

〈표 2〉 중국 동북진흥계획 진행과정

연도	주관	주요내용	비고
1992	UNDP	두만강유역 공동개발계획 제안	두만강유역
1999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일대 개발계획 구상	연변지역
2004	중국	동북3성개발을 위한 3종(從)5횡(橫) 동북진흥계획 발표	동북3성
2005	5개국 협력위원회	광역두만강계획 10년간 연장	중·남북한·몽·러
2008	중·북·러	투먼-남양-핫산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서 조인	중북러 변경지역
2009	중국 국무원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 승인, 개발추진	창춘-지린-투먼 일대

동북진흥계획은 1992년 두만강지역개발 구상 이후 중국정부가 2005년~2009년까지 중국 경제성장과 연해지역개발 성공에 힘입어 그동안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밀린 동북지역에 새로운 동북아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북한, 러시아, 몽골을 중심으로 공동협력안을 구상해 왔다.

2)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진행상황

10) www.article.joins.com(검색일: 2010.08.17).

중국은 2009년 11월 창지투개발선도구 비준 이후 정부차원에서 동북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직접투자도 비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지투개발선도구는 중국입장에서 보면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이루어진 국내적 이유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목표달성에 상당히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

중국-북한과의 변경지역은 지리적으로 길림성과 요녕성이 핵심지역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1800km<sup>2</sup> 구간을 경계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그어진다. 우선 길림성은 두만강을 놓고 볼 때, 서쪽은 집안에서 동쪽 훈춘까지 이어지는데 중국의 국경선은 북러국경에 가로막혀 동해 전방 15km 앞에서 끝이 나고 만다. 요녕성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집안시(集安市)에서 서쪽의 단둥, 신의주까지 이어진다.

이 지역은 정치군사, 경제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에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변경지역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동북3성은 특히 길림성은 내륙에 위치하여 막대한 지하자원과 풍부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송을 위한 교통수단과 국제무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중국 국무원이 창지투 개발선도구안을 통과시키자 가장 먼저 북한과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6년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와 2008년 한국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운이자 기회로 다가왔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북한 국경이 중국훈춘(방천)지역이 한반도 동해 전방 15km 앞에서 가로막혀 태평양이 있는 동해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동북3성지역이 연해지역에 비해 내륙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물류이동을 위한 교통의 장애가 주요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중국 동북지역의 지리적 불리한 여건은 북한이 나진항과 같은 부두항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고립 극복이라는 전략적 이해는 맞아떨어졌다.

중국은 원자바오총리가 2009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이후 중국 국방부장과 길림성 성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우호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국의 북한지원 즉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합의하였다. 중국은 이후 지속적으로 북중관계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을 실천해 나갔는데, 첫째, 압록강철교의 재건, 라진-선봉의 부두항 항만시설 재건, 중국자본의 대북투자합의, 위화도 북중경제협력사업 합의, 길림성과 북한의 결제수단을 중국 인민폐로 변경, 중국인의 북한 금강산관광 합의 및 추진 등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길림성 및 창지투지역 총생산 가치 비교(단위: 억 위엔)

구분	길림성	창지투	창춘시	길림시	연변주
2000	1951.51	1188.67	616.54	217.74	127.36
2001	2120.35	1363.31	731.13	235.22	142.51
2002	2348.54	1541.39	829.37	257.91	154.97
2003	2662.08	1813.65	970.42	323.43	171.72
2004	3122.01	2085.12	1123.70	370.29	194.20
2005	3620.27	2032.97	1100.70	355.53	212.20
2006	4275.12	2339.88	1267.19	405.58	245.15
2007	5284.69	2917.52	1522.12	566.18	307.36
2008	6424.06	3617.86	1864.36	707.93	379.78

출처: 『吉林省统计年鉴2001-2009』其中长春市和吉林市为地区统计数, 廖新华, 孙猛,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低碳经济发展现状,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187页.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지투지역의 경제발전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2000-2008년의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창지투개발계획에 따르면 창지투 지역의 경제규모는 길림성의 총생산액 2/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후 창지투개발선구에 2020년까지 연간 약 40조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창춘시-지린시-투먼시를 인구 약 1,000만명 규모의 거대한 하나의 광역벨트로 개발해 나가자 하며, 이에 필요한 교통수단, 행정구역개편도 하나씩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은 창춘시 인구 약 750만명, 길림시 약 200만명을 합치면 바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며, 교통수단도 창춘시-길림시 간 고속도로, 철도,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타당성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창춘시-길림시 중간 지역에 장춘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개발전략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창지투개발 현장지역의 최근 상황으로 훈춘시는 대북 교역 확대를 위해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두만강 하류의 국경다리를 전면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길이 535m인 이 다리는 북한의 나진항까지 이어지는 대북 진출의 요긴한 통로임에도 세워진 지 75년 된 낡은 다리여서 양측 간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외에 훈춘시는 북한과 새로운 취안허-원정리 국경 대교를 건설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 극동 거점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고속도로공사는 올해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이 고속도로는 기존 훈춘-하산 철도와 함께 대러시아 진출의 주요 통로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훈춘시는 창지투계획 통과 이후 북-중-러 3국을 잇는 교통망을 토대로 간단한 수속만으로 3국 관광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북한과는 이미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내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계획에 따라 동북3성과 변경지역국가들과의 교통망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동닝(東寧)과 수이펀허(綏芬河), 훈춘 등 러시아와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한 3개 통상구를 잇는 '황금 통로'가 지난해 개통된 데 이어 두만강을 따라 북한 접경지대를 연결하는 훈춘-투먼(圖們)간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내로 완공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동닝-수이펀허-훈춘 간 철도 공사가 착공되고 지린-훈춘을 시속 25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건설도 시작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물류 전진 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산업단지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교통운송통로의 건설은 중국연변지역과 러시아 병해지방경제와 중러경제무역지대로 2005년 20만톤, 2010년 80만톤과 2020년 120만 톤 규모로 예측불허의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연변지역의 교통망은 국제물류와 맞물려 2005년에는 330만 톤의 물류 가운데 중국 국경내의 유통량은 150만톤, 2010년에는 총량 1,430만톤 가운데 1,000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총량 2,720만톤 규모 예상) 가운데 약 2,100만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11)</sup>

중국은 2016년까지 100억 위엔(1조 6천억 원)을 들여 관광과 국제교육 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동북아변경무역센터를 건설하고 한국과 일본, 홍콩 등의 외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에 있다.<sup>12)</sup>

일부 기업이 이미 외국인 전용 공단에 입주한 가운데 창지투 사업이 지난해 국무원 승인을 얻어 국가급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개발 호재에 힘입어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불과 1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옌지(延吉)시 수준에 도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활황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3)</sup>

### 3.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 문제점과 과제

#### 1) 중국정부의 전략적 개입

중국은 2009년 창지투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 발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북중교류협력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된 것과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1) 王胜今··· 于潇, 『图们江地区跨国经济合作研究』, 长春: 吉林出版社, 2010, 257页.

12) 『연변일보』, 2010. 01.21.

13) 『연합뉴스』, 2010. 01. 21.

창지투개발계획은 첫째, 창지투개발계획은 중국정부가 대내적으로는 동북3성개발을 촉진하려는 중국 주도로 이끌어가려는 전략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내부적 문제의 하나로 경제적 부문에서 길림성의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상징적 입장에는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한 측면에서는 장춘-지린-투먼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조선족 자치주는 점진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동안 길림성에 중국조선족은 대부분이 거주하여 왔으나 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집거구는 하나씩 해체되면서 현재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집거구가 형성될 뿐, 이전의 조선민족으로서의 응집력과 민족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창지투개발 이면에는 이와같은 중앙정부의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길림성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조선족자치주 해체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 2) 창지투개발계획의 지역여건

창지투개발계획은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와 훈춘 개방창구가 극복해야 할 여러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약요소로는 우선 변경지구 경제총량이 크지 않으며, 대외운수도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내지(창춘과 지린)와 전진기지(연길, 용정, 투먼)의 연동이 불충분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이 지역이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 없을 경우 현재 산업경쟁력이 강하지 않고, 국가간 협력체계와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지역과 국제적인 지역 합작개발을 유효하게 지원할 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3) 국제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미비

창지투개발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의 국내문제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이외에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하는 한국과 경제적 이해가 연결되어 있다.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를 조정관리해 나가겠지만, 국제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중국 이외에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 등 5개국의 투자조건과 이를 위한 법체계는 새롭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중국과 각 해당국간의 1:1개념으로 적용되며 5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콘소시엄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에 이에 대한 외자유치와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북핵문제와 한반도정전체제

창지투개발계획은 이전 1992년 유엔의 UNDP두만강개발계획이 발표는 되었지만, 1992년 한중수교, 1993년 북핵문제, 이후 2003년 북핵6자회담 등 국제문제로 인하여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는 북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정도로 관

계가 악화되었으며, 1993년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게 작용된 시기였다. 당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유엔이 제안한 중국, 남북한, 몽골, 러시아의 두만강공동개발계획은 상징적 공동개발사업으로 그쳤을 뿐, 더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없었다.

창지투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북관계변화에 따라 유동적 변화를 보이는 민감한 지역이다. 즉 1992년 한중수교, 1993년 북핵문제로 두만강개발사업, 2006년 북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조치, 남북관계 악화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북중관계는 호전되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창지투개발계획 역시 이러한 한반도상황변화에 따라 발전유무도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5) 참가국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의 상존

창지투지역은 동북지역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국가전략사업이지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아주 예민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중국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창지투경제발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 한반도와 직접 연관될 수밖에 없다. 첫째, 중국은 대북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세력팽창을 차단하고 군사적 조치의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의 항구를 임대하여 중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륙에 위치한 몽골과의 중-몽골관계강화를 통해 몽골-중국-북한을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중국중심의 TCR건설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북중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더욱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틈을 더욱 벌여 대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중국은 향후 창지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Ⅲ. 창지투개발계획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1. 북한

북한은 2009년 11월 창지투개발선도구 발표 이후 북중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구체적인 경제적 합의를 단행하였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와 중국 국방부장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은 북한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개최로 북중우호협력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이러한 양국간 상호방문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행동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는 창지투개발선도구 입장에서 볼 때, 북중

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외교적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북핵보유공식화 이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경제부문에서의 전략적 목표에 올인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국제적 고립 전략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의 힘을 빌어 미국의 제재를 제거해 나가는 외교적 카드는 현실성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북한은 2009년 하반기 국내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북한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으나 미국의 대북제재와 남북교류의 소강상태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80년대말부터 추진해 온 중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진-선봉지구를 올해 1월 라선특별시로 승격개편하고 본격적인 돌파를 시도해 나갔다. 라선시는 창지투개발 계획에서 동해로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항구이며, 이외에 선봉항, 석유항도 북중공동개발중에 있다.

첫째, 북한은 대풍그룹을 중국 단둥시에 설치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와 금융분야를 관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둘째, 북한은 라진-선봉 부두항을 중국 다롄의 창리(創立)그룹과 훈춘~라진 간 93km 도로건설조건으로 10년간 라진항 1호, 4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주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도 단기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4)</sup> 이로써 중국은 2010년부터 투자규모 2000억 위엔, 연간 150만톤의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상하이로 운송하게 되어 약 50~70%의 수송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표 4〉 나진항 시설 및 중국·러시아의 지원

부두	접안능력	하역능력	주요화물	인프라 투자
1호	2만 톤×2 1만 톤×1 6천 톤×2 2천 톤×2	50만 톤	비료, 목재, 잡화	중국 창리기업 2, 3호 정박지의 사용권 승인(2009년 10월)
2호	2만 톤×2 1.5만톤×1 6천 톤×1 2천 톤×1	150만 톤	석탄,잡화,컨테이너	-
3호	2만톤×2 1.5만톤×1	100만톤	석탄, 목재	러시아·북한합작회사에 사용권(2008년 4월)
4호	건설예정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검색일: 2010.08.18).

14) 『연변일보』, 2010.05.04.

셋째, 북중교류를 위해 압록강-두만강을 연하는 철도와 도로의 교통수단재건에 합의하였다. 즉 압록강철교건설, 도로시설 개보수, 위화도 북중공동합작도시건설에 합의하고 중국자본을 유입하게 만들어 북중경제교류활성화와 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 대해 광물자원의 50년간 채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자원의 반출의 심화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올해 북중무역결제수단도 달러 이외 인민폐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조치카드를 현실적으로 그 영향력이 상실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반면에 그동안 진행해온 남북교류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자 금강산관광지역에 육로와 항공편을 이용한 중국인과 유럽 등 외국인 관광을 대폭 허용하면서 점진적 개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넷째, 북한은 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북중러 변경지역인 동북3성-라선시-극동·세베리아 연계개발전략과 연계하면서 북한경제난을 돌파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 러시아

러시아는 연해주지역에 대한 중국인의 불법체류와 상권장악이 심화되자 정부차원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정부는 연해주지역에 중국인 거주자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인에 의한 상권장악이 현실화되자 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에 빠져 들게 되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12년 APEC회의를 이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해주에는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약 6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 지역 상권은 중국인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변경지역국가들인 북한, 몽골국가들과 경제교류활성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2009년 10월 접경지역인 핫산~라진을 잇는 북러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거점 확보를 위해 대북철도지원에 적극성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몽골과의 국제교류합의를 통해 몽골지하자원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대외수출될 수 있도록 합의를 체결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나진항을 임대하여 중국-몽골-북한-한국을 잇는 동북아물류기지에 대한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 3. 몽골

몽골은 세계 31개 내륙국가중의 하나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항구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는 3,800km, 최단거리인 중국 톈진까지

는 1,800km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은 몽골이 2002년에 가입한 '국제육로운수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서 러시아 '국제육로운수협정'을 이용할 뿐이다.<sup>15)</sup> 현재 지하자원이 세계 10권에 올라와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개발하고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시설이 아직 구축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은 2010년 현재 인구가 약 270만 명으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인구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가공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에 의존해 생존해 나가는 국가이다. 이러한 약점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몽골에 대한 상권장악과 보이지 않는 의존도 심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2007년 몽골과 주요 대외무역 동반자관계국 교역액(단위: 백만 달러)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무역교역액	2087.3	803.5	155.3	161.1	158.5	188.6
수출액	1413.0	58.5	15.1	41.5	99.9	178.6
수입액	674.3	745.0	140.2	119.6	58.6	10.6

출처: 『蒙古国经济发展与东北亚国际区域合作』, 长春: 长春出版社, 2008年 54页.

몽골은 2007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량을 더욱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내륙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기 위해 두만강지역 항구건설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몽골은 〈표 5〉와 같이 2007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량은 점점 더 증가해 나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창지투개발계획에 적극적인 경제투자와 국제협력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철로 1,800km 최단거리 중국의 텐진항구의 임대계약을 요청해왔으나, 중국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철로 3,800km인 러시아 블라티보스톡과 지하자원 수출을 위한 경제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은 중국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몽골-러시아 관계개선이 중국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몽골-중국-북한 청진까지 하나의 교통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합의하였다.

또한 새롭게 건설될 중국-몽골간 대륙횡단철로는 중국 내몽고의 아얼산(阿爾山)에서부터 몽고 초발산(喬巴山, Choybalsan)에 이르는 구간으로 중국내 기존의 개통구간과 연결되면

15) Lkhagvasuren Damdinsuren, "蒙古国铁路运输状况分析",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 (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407-408页.

〈동북아연구〉

전 구간은 유럽-몽고-중국의 썩안맹(興安盟)-바이청(白城)-송위엔(松原)-창춘-지린-연변-러시아-북한-동해 노선이 되며, 중간에 투먼시와 훈춘시를 통과하게 된다.<sup>16)</sup>

그러나 몽골은 창지투개발계획에 중북려 주요협력 3개국체제보다는 한국, 일본, 몽골 3개국 배후국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4. 일본

일본의 GDP 세계 제2위 자리는 2010년 상반기에 접어들어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1980년대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창지투개발계획 발표 이후 일본의 이 지역에 대한 입장은 더욱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창지투계획은 분명 중국 국내적 경제사업인데도 이와 협력할 일본의 역할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고급기술, 자본투자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일관계, 러일관계, 몽일관계, 북일관계 모두 일본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극복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창지투개발지역에 투자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은 창지투개발계획지역인 길림성보다는 다롄을 중심으로 하는 요녕성에 대중무역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점점 높아가는 중국의 토지임대료와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비교적 저렴한 길림성으로 대중투자를 전환할 수 있으며, 창지투개발계획에서 일본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92년~2009년 동북진흥계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중북려 3개국 직접협력 개발사업에 참여의 명분확보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된다.

## IV. 한국의 대응

### 1. 중국 동북지역변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전환

2009년 창지투개발계획 발표 이후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한 상황인식과 이해의 부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명박정부 이후 한중관계의 불편함으로 차후 중국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인 창지투개발계획에 국제적 역할 상실과 국제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국외교패턴이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정세는 신냉전체제가 고착화, 현실화되면서 북중일 3개국의 한국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

16)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검색일: 2010.08.19)

게 돌아서고 있다. 이는 글로벌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외교적 행위이며, 한국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북중러 3국은 물론 이들 국가들과의 친밀한 외교관계를 형성해 가는 국가들과의 관계설정에도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창지투개발선도구는 한반도와 가장 이해관계가 접목되는 사업이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로 중국과 북한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부분적인 경제교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중교역량과 인구가동은 이미 한중교역량과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표 5〉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추진 내용

	개발지원 내용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3성내 외자유치확대와 접경지역과의 연계 강화</li> <li>· 변경무역 활성화 강화</li> <li>· 수출입가공, 국제상업지역 육성(훈춘, 단동)</li> <li>- 중국기업의 북한 자원개발 후 중국 수입</li> <li>· 두만강하류지역에 투자사례로 나진 인근지역인 산농산 금광에 산동성 귀다기업이 2006년부터 투자</li> <li>· 중국 통화처장집단은 함북 무산철광에 장기적으로 70억 위엔 투자(광산 설비투자 및 주변 도로, 송전설비 현대화)를 합의하고 50년간 철강 채취권 확보</li> <li>- 동북3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동해출구 확보를 위한 북한 나진·선봉지역과의 연계</li> <li>· 동변철도 건설완공(2008년 12월)</li> <li>· 나진항 개발투자 및 훈춘-나진 간 도로확충 지원</li> <li>· 북중 간 논의해 오던 新 압록강대교 건설확정</li> <li>· 2009년 10월 4일 원자바로 총리 방북시 공식발표</li> <li>· 왕북 4차로 단동-신의주 간 배후 도로건설 지원 및 압록강 하구의 비단도 개발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전망</li> </ul>
길림성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림성 정부의 11차 5개년계획(2006~10년)사업계획 강조- 두만강 하구 지역개방 촉진</li> <li>- 훈춘 국경경제협력구와 길림훈춘 수출가공구의 개발 촉진</li> <li>· 국무원에서 승인한(2009년 11월) 창지투 연계개발사업 추진</li> <li>· 훈춘에 '동북아변경무역센터' 건설 중</li> <li>- 중국 연변 훈춘-북한 나진시 간의 도로·항구·지역일체화사업 추진</li> <li>· 중국측 훈춘-권하(39km) 도로건설사업 완료</li> <li>· 북한측 원정리-나진 간(67km) 도로건설 추진</li> <li>- 훈춘 화력발전소 2단계 공사완료</li> <li>· 현재 55만kw 발전용량, 나진·선봉지역과 인근지역에 잉여전력 공급 합의</li> </ul>

출처: 대외경제연구원,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2009.11, p.5 참조.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동맹강화를 목적으로 한미관계를 증시킨 나머지 상대적으로 한중관계를 불균형적으로 외교관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은 결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G2로 부상한 중국을 의식하여 이미 2009년 7월 미국에서 제1차 '미중경제전략대화'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중국에서 제2차 '미중경제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21세기 이후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냉전시대의 외교패턴과는 상당히 모순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 사이의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서 분단체제, 특히 미중일 러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산업구조가 약 80%를 무역을 통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지리적, 역사적, 미래적 측면에서 우호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창지투개발선도구 문제에 한국의 대응은 향후 심도깊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창지투개발 주관기관이 길림성이라는 점인데, 길림성은 한민족의 고대~현대에 이르기 까지 민족, 역사, 문화, 경제적 부문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 대부분이 이 지역에 밀접해 있고, 한국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약 60%가 중국재외동포(조선족)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09년 현재 한국 무역교역량 약 절반이상이 한중무역에서 이루지고 있으며, 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는 조선족과 대중투자, 중국인의 대한투자라는 점에서도 창지투에 대한 연구와 참여기회 확보, 공동연구개발에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 2. 남북관계개선과 창지투개발 연계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수치상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분야에서 소강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남북한의 반목과 불신, 대립관계는 결국 중국의 창지투개발에서 한국을 배제한 북중경제협력의 절대적 우위확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나선시 접근은 중국의 단순한 경제협력범위를 넘어선 미래 중국의 국가전략, 대외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해에 진출할 기회를 청조 이후 단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특히 1860년 북경조약 체결 이후 연해주가 러시아령으로 전환 된 이후 중국의 동해진출의 간절한 꿈은 지속되어 왔다. 중국이 러시아의 남하정책 차단과 일본의 견제, 북한포용과 안전지반 확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운다면 향후 이 지역에서 한국이 감내해야 할 외교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그림 1〉 중국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의 지리적 위치



김토일 기자 kml01@yna.co.kr / 20090904

출처: 연합뉴스(검색일: 2010.08.19)

북한의 대중국 인식은 미국의 대북제재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북중관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북한의 중국의존도 즉 경제적 예측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30년 이상을 거치면서 시장경제 수용정책은 현재 중국이 더 이상 폐기할 수 없는 국가경제정책으로 채택된 것과 같이, 북한의 중국자본유입은 북한의 경제적 현실에서는 유용하면서도 남북관계에서는 자칫 독(毒)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국제적 문제로 부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 간 엄청난 흥역을 치렀던 사례를 살펴볼 때, 이명박정부의 지속적인 남북관계개선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북한의 중국의존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는 점에서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신속히 복원되지 않을 경우 한중관계 및 창지투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기회는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 상실도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3. 한중의 실질적 전략적협력관계의 강화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무역교역량은 2009년 12월말 현재 세계9위로 올라

섰다.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9년 한중 간 무역 교역규모는 1409억 4930만 달러로 1992년 수교 첫 해인 63억 7911만 달러에 비해 22배가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한미 간 무역규모는 1.8배, 한일 간에는 2.3배에 머물렀다.<sup>17)</sup> 따라서 중국은 이제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며, 최대수출국이라는 점에서 21세기 한국 대중국전략은 새롭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1992-2010년 한중수교 18년 진행동안 1993년 이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중국은 2001년 한국의 최대수출국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될수록 한중관계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로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행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현실은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의 현실에서 한국이 나아가갈 방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유지와 한중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형태는 한미동맹관계에 치우치는 불균형의 외교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한국의 인식에 상대적 불만과 불편함은 양국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무역을 8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거대한 무역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제정치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2009년 한국 해외관광자수는 949만 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방문자는 320만명을 기록하여 전체 34% 해외방문자의 34%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인의 한국방문자수는 2005년 58만 명에서 2009년 134만 명으로 두 배가 늘었으며, 일본인 관광객 305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관광객은 평균 소비액이 2,203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외국인 평균소비액보다 32%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18)</sup> 하지만 최근 한국정부가 중국어 교사, 퇴직자, 특수대학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1년 기간의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Multiple-entry visas)를 발급하는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국인 해외관광객 5,000만명 가운데 한국방문자는 134만 명으로 전체 2.8에 불과하다는 현실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8년 이명박-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성격을 ' 전면적협력관계'에서 '전략적협력관계'로 격상시켜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양국의 관계는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불편한 심기를 한중관계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한국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계획, 실시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여 양국관계가 더욱 대립각을 세우게 하였다. 양국의 이러한 외교적 태도와 해결방식은 양국의 미래적 관점에서

17) <http://news.mt.co.kr>(검색일: 2010.08.18).

18) <http://news.chosun.com>(검색일: 2010.08.20).

도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4.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재인식과 연구개발

한민족에게 있어서 동북지역은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단군조선, 고구려, 발해, 금조, 청조, 항일독립운동,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등의 용어들은 모두 동북지역과 한민족과 떼려야 뗄수없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5월 1일 기준 한국의 재외동포는 총 6,822,606명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2,336,771명(중국 국적 1,922,329명)으로 중국이 34.25%, 미국 30.81%보다 높게 나타났다.<sup>19)</sup>

그동안 동북지역은 냉전의 유물로 한중 간 지속적인 교류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연구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아직도 양국관계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한국뿐만 아니라, 창지투개발계획과 관련된 참여국 간 미래지향적 공동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창지투개발계획은 중국이 중국동북3성의 낙후된 경제수준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 목표에 동북아국제물류기지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발빠른 조사작업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분단 이후 국제적으로 반도국가로서의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섬' 아닌 '섬'국가로 국제무역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중국의 거대시장과 동북아 새로운 국제물류기지로써의 동북지역의 역사연구, 교통체계, 국제관계의 이해없이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창지투개발이 이루어지는 길림성은 압록강과 두만강, 한반도의 동해의 국경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상충지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21세기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동북지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반도평화체제와 선진국 달성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을 배제한 세계에서 분단국으로서의 한계와 국제투자가치 상실, 둘째, 북한과 연계한 동북지역을 배제한 한국은 영원한 '섬'국가로서의 국제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의 경제발전은 문화수준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민족 고대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인식의 결여는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가치를 달성하는데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19)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 www.mofat.go.kr(검색일: 2010. 08. 16).

## V. 결 론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이미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그 무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2009년 국제무대에서 G2국가로 부상되어 21세기 Great Power를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화되는 일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는 1978년 이후 30년 넘게 추진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연해를 중심으로 대부분 완성되고 이제 중국 내륙인 동북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또다른 중국의 성장동력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인구 13억 이상의 엄청난 대국이며 21세기 막대한 경제소비시장이기도 하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꾸준한 교역량의 증가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며 최대의 수출국이 된 지 오래됐다. 한중관계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속에서 양국관계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대세는 세계경제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며 양국관계의 발전과 공동협력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할로 나타날 것이다.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는 중국의 새로운 도전이며, 중국의 역할과 능력을 평가받는 실험장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은 변경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역에 집중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창지투지역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영토분쟁, 경제적 이해, 군사적 충돌, 문화적 갈등과 민족갈등도 야기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과 주변국들이 미래지향적인 관점 즉 '동북아공동체'를 위해 공동협력 나간다면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중국의 창지투국가전략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정부차원에서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에 대한 개념파악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한중관계의 정치경제적 분리접근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한국의 외교기조 변화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기조변화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지투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전환으로 한중관계를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공동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민간부문이 함께 공동참여했을 때만이 기대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셋째, 창지투개발참여를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체제 강화, 시베리아횡단철도 구축을 통한 21세기 한반도재건을 위한 새롭고 원대한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王胜今, 赵儒煜,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的城镇体系建设战略”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 (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2010年.
- 王胜今·于潇, 『图们江地区跨国经济合作研究』, 长春: 吉林出版社, 2010年.
- 陈志恒·万可, “关于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的理论解读”,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 (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2010年.
- 刘雅郡, “中吉林省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与路旅游业发展”, 『동북아연구』 제24권제2호(통권제29호), 2009年.
- 走东涛·欧阳日辉, 『新中国经济发展60年』, 北京: 人民出版社, 2009年.
- 『蒙古国经济发展与东北亚国际区域合作』, 长春: 长春出版社, 2008年.
- Lkhagvasuren Damdinsuren, “蒙古国铁路运输状况分析”, 吉林大学·北京大学东北亚论坛2010.7.20 『东北亚区域合作与长吉图开发开放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2010年.
- 『黑龙江统计年鉴』及全国和各省『200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布』.
- 『东北亚研究』吉林省社会科学院, 2009年 第3期.
- 『东北地区2008年经济形势报告』.
- 『中国统计年鉴』.
- 『辽宁统计年鉴』.
- <http://www.newswave.kr/sub-red>(검색일: 2010.08.05).
- [www://wenku.baidu.com/view](http://wenku.baidu.com/view)(검색일: 2010.08.15).
- [www.article.joins.com](http://www.article.joins.com)(검색일: 2010.08.17).
- <http://www.hani.co.kr>(검색일: 2010.08.18).
- <http://www.kiep.go.kr>(검색일: 2010.08.18).
- <http://www.seri.org>(검색일: 2010.08.19).
- <http://news.sohu.com>(검색일: 2010.08.12).
- <http://news.mt.co.kr>(검색일: 2010.08.18).
- 『연변일보』, 2010. 01.21.
- 『연합뉴스』, 2010. 01. 21.
- 『연합뉴스』(검색일: 2010.08.19).

〈동북아연구〉

《Abstract》

## The Influence of the Northeast Revitalization Plan of China on Korea: Centering on the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Kim, Joo-Sam

In late 2009, China's exports were ranked as first in the world an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ts GDP was ranked second in the world. Therefore, China has achieved the position and role of G2 just behind the United States. As China has successfully developed its coastal waters for 30 years since its Economic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ed by Deng Xiaoping, that started in 1978, it has spurred development of the three northeastern Chinese provinces.

On November 18, 2009, the government of China designated the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as a national strategic project and ratified it. Analysis of the plan shows that it is very complicated and sensitive in that it cannot help but be related with North Korea, Russia, Mongolia, South Korea, and Japan although its focus is on the northeast provinces of China. However,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re classified as central nations to the development plan, and South Korea, Mongolia, and Japan are included to a lesser extent.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suggested a joint development plan for the Tumen River Basin in 1992, but no special results have been achieved due to international problems such as the poor participation of relevant nations and low investment. Therefore, in considering the past case, the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is very important in respect to its future success and its influence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What measures South Korea should take in respect to the development plan of China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Key Words : Northeast Revitalization Plan of China,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three northeastern Chinese provinces, national strategic project

투고일 : 2010. 6. 30 / 심사일 : 2010. 7. 10 / 심사완료일 : 2010. 8. 25